

‘풍전등화’ 금호타이어 30일 운명 기로

채권단 “30일까지 자구안 합의·해외자본 유치 동의” 최후통첩 노조 오늘 총파업 “해외 매각 반대”...김중호 회장 “법정관리 막아야”

금호타이어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노사 자구안 합의의 마지막 메드라인이 오는 30일로 사실상 확정됐다. 1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측이 지난 9일 채권단에 ‘해외매각 철회’를 전제로 대화의 채널을 만들고 제안했지만 채권단은 전날 회

신 공문을 통해 ‘해외매각 입장’을 재차 밝혀 온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단(산업은행은 (중국 더블스타) 해외의 자본 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최종 입장이다. 채권단은 전날 ‘금호타이어 노조

의 해외매각 철회 등과 관련된 당행 입장 표명요구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등을 감안할 때 외부 자본 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가 최선의 대안임에 동의하고, 더블스타 자본 유치를 추진 중에 있다”며 “노



MB가 설 포토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내외신 기자들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뉴스1

조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자본 유치를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유동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를 유지할 대안이 없다”며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노사 자구안 합의와 해외자본 유치에 대한 동의를 오는 30일까지 완료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채권단의 입장은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조와 채권단의 평행선 달리기 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운명의 날인 오는 30일까지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위해 김중호 금호타이어 회장이 지난 12일 광주 광산구 영광동 사거리 송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노조 집행부를 전격 방문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크레인에 올라타고 고공 농성 중인 조삼수 대표 지회장과 정승강 곡성지회장을 만나 “노사 모두에게 가혹한 시련이 될 수밖에 없는 법정관리는 무조건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성을 풀고 내려와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회장은 지난 주말 직접 채권단과 함께 중국 더블스타를 방문해 차이용선 회장 등을 만나 확인한 사실과 내용도 노조집행부에 전달했다. 그는 더블스타의 구체적인 인수

목적과 조건, 투자계획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회사의 독립경영, 3승제 고용보장·노동조합·단체협약, 국내공장 투자 등에 대한 회사의 핵심 요구사항을 더블스타에 전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노조에 설명했다.

김 회장은 “금호타이어가 처한 현실을 노사가 냉철하게 바라보고 대화를 통해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며 “안타깝게도 현재 회사는 자력으로는 정상화가 불가능하고 외부 자본 유치와 채권단의 지원이 있어야만 법정관리를 피하고 정상화가 가능하므로 지금은 노사가 주어진 현실을 모두 인정할 상태에서 대화를 통해 대안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노조의 입장은 강경하다. 노조는 채권단이 해외매각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오는 14일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키로 결정했다.

노조는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되느냐 법정관리(위크아웃)를 택하느냐는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

오는 30일까지 자구안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할 경우 금호타이어는 위크아웃을 졸업한지 4년 만에 다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되며 광주, 곡성, 광평 등 국내 공장은 모두 청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에 따른 모든 피해가 전체 구성원과 협력업체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금호타이어 국내 임직원 은 광주와 곡성, 경기도 광평 등 국내 생산공장 3곳을 포함해 5040명에 달하며 여기에 190여개 협력업체 근로자 1만5000여명까지 더할 경우 생계가 달린 종사자 수만 2만명에 이른다. /최훈의 기자

광주세계수영마스터즈대회 준비작업 본격화

세계 수영동호인들의 축제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터즈대회 준비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이틀동안 FINA 마스터즈위원회 위원들이 광주를 방문해 선수촌과 경기장 현장을 둘러보고 대회준비 실무회의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코빌 마르쿨레스쿠 FINA사무총장을 단장으로 모하메드 디올 FINA 부로 리에중, 도린 티보즈 위원장, 펠 필드스테인 부위원장, 에드워드 에벌리 명예간사, 가보 카파티 FINA 사무국 담당관 등 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마스터즈 선수들의 경기장 접근성과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남부대 수영장과 여수해양엑스포공원 등 경기 예정지를 방문했다. 또 선수촌 건설 현장을 방문해 광주주요부로부터 선수촌운영계획을 보고받았다.

마스터즈위원회는 경기장과 선수촌 등에 만족해 했으며 차질없는 완공을 주문했다.

윤장현 조직위원장(광주시장)은 이들과의 오찬에서 “수영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마스터즈 선수들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고 또 다양한 국적을 갖고 있다”며 “선수들이 광주에 머무는 동안 최고로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음식, 숙박, 관광 등 많은 즐길거리를 마련해 놓고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19년 7월12일부터 28일까지, 2019광주세계수영마스터즈선수권대회는 그 직후인 7월29일부터 8월11일까지 14일간 개최된다. /한동주 기자

전남도 올해 7600억 투입 ‘청년일자리’ 8803개 창출

좋은 일자리 기반 강화... ‘전남청년 마을로 내일로’ 집중 추진

전남도는 청년인구 감소와 고용난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4개 분야 110개 ‘청년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올해 7685억 원을 들여 8803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청년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용인구 증가로 전남지역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66.5%로 하락해 전국 평균(73.1%)을 밑돌면서 산업 활력 저하가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청년의 지역 안착, 고용 유지를 위해 새롭게 발굴된 청년일자리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효과적인 기존 청년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28개 사업에 2010억 원을 들여 2279개 ▲빈 일자리 채우기 19개 사업에 2300억 원을 들여 3007개 ▲틈새 일자리 창출 41개 사업에 1425억 원을 들여 2956개 ▲지역 향토산업 일자리 22개 사업에 1950억 원을 들여 561개 일자리를 각각 창출한다는 목표다. 기본 추진 방향은 좋은 일자리 기반 강화다.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와 고부가가치 에너지산업, ICT 등 지속적 성장 동력을 제공할 주력산업 다각화, 지역과 청년이 상생하는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남청년 마을로, 내일로’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창업 기반이 열악한 전남의 비교우위 연구개발(R&D) 기술을 사업화하고, 창업 지원 주체로서 혁신형 창업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전남 기술창업주식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 지원 및 교육기관 협력

도 강화한다.

전남지역 내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과 산업체가 참여하는 산업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인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확대, 청년들의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으로 지역 인재를 유도하는 전남형 청년근속장려금 지원 확대, 대학 재학생이 졸업 후 취업까지 지원하는 대학일자리센터 확대, 특성화고생을 대상으로 지역 기업 취업 후 진학 기회를 부여하는 선취업-후진학 과정 확대 등을 추진한다. /최호영 기자

「2018영암 방문의 해,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

2018 영암왕인문화축제

2018. 4. 5 목 > 4. 8 일 / 4일간
왕인박사유적지 일원

4.5 (목)	4.7 (토)
<p>10:00 - 12:00 왕인박사 춘향제 (왕인사당)</p> <p>12:30 - 13:30 왕인어린이 재롱잔치 (주무대)</p> <p>13:30 - 14:00氣 발한 매직쇼 (주무대)</p> <p>14:00 - 17:00 왕인박사 학술 강연회 (영월관2층)</p> <p>14:30 - 16:30 남주골 어울마당 (주무대)</p> <p>18:00 - 18:30 왕인's 아리아 (주무대)</p> <p>18:30 - 19:00 개막행사 '왕인의 빛! 세계로!' (주무대)</p> <p>19:00 - 21:00 개막축하방송(MBC) (주무대)</p>	<p>10:00 - 10:30 삼호난타공연 (주무대)</p> <p>10:00 - 16:00 제4회 천자문·경전 성독대회 (주무대)</p> <p>10:30 - 11:30 태권도&기예무단 공연 (주무대)</p> <p>11:30 - 12:00 보부상 경매쇼 (주무대)</p> <p>12:00 - 13:00 미니퍼레이드 왕인행차 (축제장 일원)</p> <p>12:00 - 14:30 백제 차문화 시연회&토크콘서트 (주무대)</p> <p>14:30 - 15:00 삼호 대동 강강술래 (주무대)</p> <p>15:00 - 16:30氣운센 찰사 페스티벌 (내른마당)</p> <p>16:30 - 18:30 왕인청소년 페스티벌 (주무대)</p> <p>18:30 - 19:00 보부상 경매쇼 (주무대)</p> <p>19:00 - 21:00 KBS 라이브 뮤직쇼 (주무대)</p>
4.6 (금)	4.8 (일)
<p>10:00 - 12:00 왕인학생 예술대회 (축제장 일원)</p> <p>12:00 - 13:00 미니퍼레이드 왕인행차 (축제장 일원)</p> <p>12:00 - 14:00 왕인박사 추모 한시백일장 (주무대)</p> <p>14:30 - 15:30 갈곡들소리 (주무대)</p> <p>15:30 - 17:30 영암 화전놀이 「氣찬골 잔치날」 (내른마당)</p> <p>17:30 - 18:00 4월달 빛꽃프러포즈 (주무대)</p> <p>18:30 - 19:00 율령 팼짜래 공연 (주무대)</p> <p>19:00 - 20:30 드림콘서트 with 이승환 (주무대)</p>	<p>10:00 - 12:00 구림 빛꽃길 걷기대회 (주무대-구림마을)</p> <p>11:00 - 12:00 도포제 즐다리기 (주무대)</p> <p>12:30 - 13:00 보부상 경매쇼 (주무대)</p> <p>13:00 - 13:30 히어로 뮤직 갈라쇼 (주무대)</p> <p>14:00 - 15:30 왕인박사 일본가요 퍼레이드 (주무대-상대포)</p> <p>14:30 - 15:10 평양민속예술단 공연 (주무대)</p> <p>15:10 - 16:00 왕인 전통연희단 공연 (주무대)</p> <p>16:30 - 17:00 4월달 빛꽃프러포즈 (주무대)</p> <p>17:30 - 18:00 드림싱어즈 오페라 공연 (주무대)</p> <p>18:00 - 18:30 폐막행사 '왕인의 빛! 미래로!' (주무대)</p> <p>18:30 - 20:30 구림의 빛(CJ호남방송) (주무대)</p>